

기후변화에 대한 ‘집합적 책임’과 기독교교육*

이인미(성공회대학교 신학연구원/연구원)

goodwood@hanmail.net

한글 초록

본 연구의 목표는, 여성 정치사상가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가 『책임과 판단』에서 소개한 개념 ‘집합적 책임’을 들여와 기후변화를 주제로 하는 기독교교육 분야에 응용하는 것이다. 먼저 본 연구는 ‘집합적 책임’ 개념을 집합적 유죄 개념에 대비하면서 작금의 기후변화 문제가 개인윤리의 과제라기보다는 정치적 과제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집합적 책임’의 교육활동이 그 자체로 교육자와 학습자가 공히 참여하는 공공의 정치행위로 전개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정치행위로서 기독교교육 활동의 전개방안에 관하여 다음의 네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존망 위기에 대한 불안 및 분노의 감정을 공적 수준에서 발표하며 공유하기. 둘째, 칸트가 말한 “확장된 심성(공통 감각)”을 통하여 이기주의(이권 편향)를 초월하기. 셋째는 “시민참여로서 아렌트적 토론학습”으로 호명되는 대화와 토론의 학습공동체를 결성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그 같은 학습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을 이웃사랑의 지평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기독교교육이 일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는 아렌트의 정치이론을 기후변화 및 기후활동, 그리고 기독교교육에 관계지어 구체적으로 다룬 국내 최초의 학제간 연구논문이라는 사실이다. 비록 정치이론을 기독교교육에 응용하는 이론적 조직신학적 연구를 표방하나, 실제 교육장면에서 활용

* 본 논문은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과 업무협약을 맺은 <한국기독교교육학회>의 2022년 6월 11일 하계하술대회(주제: 생태환경과 기독교교육)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가능한 실천적 제안을 동반하고 있음을 자부한다.

《 주제어 》

기후변화, 기독교교육, 한나 아렌트, 집합적 책임, 감정, 공통감각

I. 들어가는말

지난해(2021년) 하반기에, 기후변화 관련 영어단어들에 대한 옥스포드 사전의 공식 업데이트가 있었다(<https://www.oxfordlearnersdictionaries.com>). 추가된 표제어들 중 특별히 눈에 띄는 단어, ‘기후위기(climate crisis)’와 ‘지구가열화(global heating)’는 그간 ‘기후변화(climate change)’와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가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던 긴박감과 위기감을 지목한다. 지구의 대기에 일어난 기후변화는 다만 객관적·이성적 이해력을 요구할 뿐 아니라 주관적·정서적 위기감을 야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대기과학자 조천호에 따르면 기후변화가 처음 언급될 무렵엔 과학 분야에서 통용되는 전문적 주제에 국한되어 있었다(조천호, 2019, 63). 또 사회학자 앤터니 기든스도 언급했듯(Giddens, 2009, 85), 오늘날에도 기후변화 관련 여러 자료들이 과학 분야의 조사와 연구에 여전히 의존되어있는 현실이긴 하다. 그렇지만 스웨덴의 십대 소녀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 할리우드 영화배우 레오나르도 디캐프리오(Leonardo DiCaprio)의 사례를 보면 기후변화에 관한 한 고전적 의미에서의 과학자/비과학자, 전문가/비전문가, 활동가/비활동가가 엄격히 구별되지는 않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바야흐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구인 모두는 지구행성의 기후변화라는 주제 앞에서만큼은 인류 즉 인간 종족이라는 ‘집합(collective)’ 안에 포함되어있는 자신을 어떤 방식으로든 감각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대다수 사람들이 기후변화 문제를 집합(인류)의 단위에서 검토하여야 할 대주제

로 알고 있다는 이야기다.

본 연구는, 여성 정치사상가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가 『책임과 판단』에서 소개한 개념 '집합적 책임(Collective Responsibility)'을 들여와 기후변화를 주제로 하는 기독교교육 분야에 응용하고자 한다. 먼저 기후변화를 주제로 삼았거나 본문에서 비중 있게 거론한 생태환경 관련 기독교교육 분야 선행연구물 몇 편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런 다음 '집합적 책임' 개념을 집합적 유죄 개념에 대비하면서 작금의 기후변화 문제가 명실공히 정치적 과제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집합적 책임'의 교육활동은 그 자체로 교육자와 학습자가 공통으로 참여하는 공공의 정치행위에 다름 아니라는 말이다. 이때 정치행위로서 기독교교육 활동이 어떻게 전개되면 좋을지에 관하여 본 연구는 다음의 네 가지를 제안코자 한다. 첫째는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존망 위기에 대한 불안 및 분노의 감정을 공적 수준에서 공유(교육)하는 것이다. 둘째, 칸트가 말한 "확장된 심성(공통감각)"을 통하여 이기주의(이권 편향)를 초월하도록 훈련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셋째는 "시민참여로서 아렌트적 토론학습"으로 부를 수 있는 대화와 토론의 학습공동체를 결성하는 일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는 그 같은 학습공동체 안에서 성서의 말씀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갈 5:6)"을 이웃사랑의 지평에서 실천하고 또 경험할 수 있게끔 기독교교육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II. 기후변화와 기독교교육

기후변화와 전 지구적 생태환경 문제를 기독교교육 측면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적용하며, 나아가 어떤 방식으로 실천할 것인지 고민할 뿐 아니라 기독교신앙의 면에서 여러 다양한 교육적 실천방안을 제안하는 연구물이 더러 있다. 그 가운데 비교적 최근 논문들을 몇 편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생태학적 기독교 영성을 통한 기독교교육의 방향과 실천적 제언”에 담긴 김은주의 제언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교회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경험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과 연대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어린이를 성만찬 축제에 초대하자는 제언이다. 이때 성만찬 식탁은 “이성만이 아니라 몸으로 경험하고 다양한 감각과 감성을 통한 통전적인 앎이 이루어지는 교육의 자리”일 수 있다고 김은주는 설명한다. 둘째 제언은 ‘비우는 것(케노시스)’의 실천을 위한 묵상과 환대 훈련이다. 여기서 묵상은 나보다 더 크신 이를 모실 수 있는 내면의 공간을 마련하는 활동으로, 환대는 타인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활동으로 각각 풀이된다(김은주, 2020). 그런데 흥미롭게도 ‘비우는 것’의 실천을 위한 묵상과 환대 훈련의 경우 이것과 유사해 보이는 내용이 이보다 10년 전쯤 이미 제출된 바 있다. 김난예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나의 마음을 개방”해야 하고, ‘세계 속에서의 나’를 발견해야 하며, 지구촌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실 문제를 “나의 문제로 자각하는 훈련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김난예, 2009). 두 사람의 논의에서는 기후변화를 포함하는 생태환경 문제를 다루는 기독교교육에서 학습자(어린이) 개인의 영성훈련이 중요한 지점으로 고려되고 있다.

조미영은 “기후변화의 위기와 기독교 생태교육의 방향 모색”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인간중심적 세계관에서 생태적 세계관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미영이 강조한 생태적 패러다임의 내용은 배려와 존중의 관계성, 창조영성의 회복, 생태적 상상력(칭지기로서의 책임과 연대) 등이다. 조미영의 결론을 요약하면 “창조영성과 생태적 상상력을 중심으로 한 기후변화의 위기에 대한 기독교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조미영, 2021). 한편, 생태적 상상력이라는 개념은 손문의 글에서도 발견된다. 그는 성삼위일체 모형을 본떠서 기독교대학에서 활용가능한 녹색성장 모형을 ‘상상하기-해석하기-공동체로 실천하기’의 서로 연결된 세 축으로 제시하였다. 그중 상상하기의 교육적 활동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그것이 “존재의 궁극적

조건이 되시는 하나님을 개별적으로 구분하는 단절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유기적 전체로 조망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접근의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하였다(손문, 2012). 이때 유기적 전체로 조망한다는 표현이 '생태적'의 의미를 상술한 것으로 읽힌다. 그런데, 생태환경을 경제 분야에서 주로 통용되는 '자연자본(nature capital)'으로 취급하며 '녹색성장'이라는 OECD의 용어까지 거의 그대로 기독교교육 논의에 들어온 점은 신선해 보이지만, 다소 생경해 보일 수 있기도 하다.

위의 생태환경 관련 기독교교육 연구물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용어들이 있다. 생태적 패러다임 혹은 세계관, 생태적 상상력, 생태영성 혹은 창조영성, 그리고 개인 영성훈련의 중요성 등이다. 이 핵심어들은,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도 그렇지만, 실제로 기독교분야의 환경활동가들의 글이나 연설이나 인터뷰, 그리고 기독교분야 환경교육가들의 강의에서 한 번 이상 듣게 되는 낯익은 용어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익숙한 반면, 혹여 자칫 클리셰(cliche)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없을까 조금 우려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생태, 세계관, 영성, 훈련 등에 초점을 맞춘 위의 연구물들에서 약간 초점을 이동하여 정치적 개념 '집합적 책임'을 들여오는 지점에서 기독교교육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기후변화를 다루는 인간의 태도·행위의 변화가 다만 개인 단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공동체 단위, 마침내 국내 정치를 넘어 국제정치 차원으로까지 확장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할 때, 본 연구는 그와 같은 목표가 실제 교육장면에서 어떠한 교육적 역동을 통해 학습될 수 있을지 탐색하는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요약하면 기후변화에 대한 '집합적 책임'이라는 주제로 정치적 행위 및 태도를 촉진하고자 하는 기독교교육의 가능성에 대한 조직신학(정치신학) 연구자의 실험적 모색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Ⅲ. 기후변화와 ‘집합적 책임’

‘집합적 책임’은 아렌트의 저서 『책임과 판단』에 실린 짙막한 논문 “집합적 책임(Collective Responsibility, 1968년 발표)”에서 소개되었다. 간단히 말해 ‘집합적 책임’은 공동의 책임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자기 개인의 책임을 수용하고 집합의 다른 구성원들과 연대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서 ‘집합적 책임’과 ‘집합적 유죄’를 혼동하면 안 된다. 아렌트의 설명에 따르면 책임(Responsibility)과 유죄(Guilty)는 사뭇 다른 이야기다. 유죄-무죄가 재판정에서 가름 될 때는, 마피아 같은 조직폭력 범죄는 물론이거니와 나치의 친위대(SS) 같은 정치적 범죄라 할지라도, 해당 범죄집단에 참여한 특정 개인의 특정 행동이 얼마나 그 범죄에 깊이 연루되어있는가, 자발적인가 비자발적인가를 중심으로 판단된다. 그때 만일 모든 사람들 각자가 공평하게 또 자발적으로 유죄를 자백한다면, 누구에게 죄과를 물어야 할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Arendt, 2003, 147-148). 기후변화 문제도 그것과 유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니 ‘집합적 책임’을 강조할 때는 유의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 유죄입니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여야 한다. 동시에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의 비중을 분간하고,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판단의 과정을 생략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비록 기후변화에 대한 ‘집합적 책임’을 의식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나, 실제 행동에서는 그것과 무관한 이들이 아직 많은 게 우리 현실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 기후변화 문제를 위해 국가적·국제적으로 행동해야 할 때임을 진지하게 생각하며 발언하는 이들조차 자신들의 일상생활에 커다란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리 행동한다(Giddens, 2009, 148). 다시 말해 기후변화를 염려하는 개인들 가운데 조지 마셜이 지적했던 바 “도덕적 면허(moral license)” 차원에서 간단한 실천행동만을 반복하는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도덕적 면허’란 어떤 단일행동을 ‘한층 더 해로운 행위를 상쇄하는’ 개인적 정당화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현상을 의미한다(Marshall, 2018, 279-280). 그런 점에서, 기후변화 문제는 이른바 의식화교육을 통해 일상적 태도와 행동을 전반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는 낙관적 예측을 간단히 허용하기 어려운 주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집합적 책임'은 집단 안에서 과연 어떻게 공유 혹은 교육될 수 있을까? 아렌트에 따르면, 그 첫 단계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볼 것은 '집합적 책임'을 의도적으로 개인적 양심의 차원에서 다루지 않는 일이다. 양심은 윤리의 차원에 놓여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집합적 책임'이 윤리 차원에서 환기되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하는 이들이 제법 많을 것이다. 유대-기독교 신앙전통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의 생활습관이 생태환경 위기를 불러왔다고 고백(고발?)하며, 마침내 성 프란시스를 생태주의자들(ecologists)의 성자로 추앙한 린 화이트(Lynn White)의 1967년 글 "생태적 위기의 역사적 기원(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al Crisis)"은 말하자면 '집합적 책임'을 양심의 차원, 기독교윤리의 차원에서 환기한 저작으로 볼 수 있다(White, 1967). 최근 미국의 목사 짐 안타(Jim Antal)이 화이트의 논문을 서두에 인용하며 시작한 책 『기후교회, 왜? 어떻게?』도 기후변화 앞에서 기독교인들의 양심이 적절히 작동하기를 기대한다는 점에서(Antal, 2019, 158), 기후변화에 대한 '집합적 책임'을 양심의 차원에서 다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렌트는 윤리 혹은 도덕이 개인의 행위를 양심 앞에 세우는 한편, '집합적 책임'은 개인의 행위를 공동체 즉 세계(world) 앞에 공개한다고 분별하였다(Arendt, 2003, 153). 이 같은 아렌트의 분별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통찰은, 기후변화에 대한 '집합적 책임'을 제시하고자 할 때는 필연적으로 개인과 집단들의 행위를 공동체 즉 세계 앞에 세워야 하며, 그 모든 행위들이 결국 정치의 과제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조지 몽비오(George Monbiot)는 기후변화가 "가장 강력한 정치적 운동이 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Monbiot, 2006: McFague, 2008, 42에서 재인용). 기

든스와 마셜도 기후변화 문제의 경우 개인의 양심에 호소하는 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Giddens, 2009; Marshall, 2018). 기독교윤리학자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는 어떤 주제가 정치영역의 것인 한 인간의 이성이나 양심에만 전적으로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였는데(Niebuhr, 1992, 284), 아래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개인으로서 사람들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봉사해야 할 것과 서로 간의 정의를 확립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 그런데 인종적·경제적·국가적 집단으로서의 개인들은 스스로 그들의 힘이 명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지 한다(Niebuhr, 1992, 35).

물론 개인의 양심에 호소하며, 개인의 일명 생태적 회심을 기대하는 일이 전연 불필요 혹은 불가능하거나 아예 무의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다만 기후변화와 양심, 그리고 개인영성의 관계를 다루고자 할 때도, 오늘날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대한 ‘집합적 책임’이 개인의 차원이 아닌 집합의 차원에 놓여있으며 국가 대 국가, 사회 대 사회로서 정치적 해결을 촉진해야 하는 문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IV. ‘집합적 책임’과 기독교교육: 네 가지 잠정적 제안

수많은 교육전문가들이 교육을 개념을 정의해 왔지만, 정치사상가로서 아렌트는 “교육의 위기(The Crisis in Education)”라는 글에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교육은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정도로 충분히 이 세상을 사랑할 것인지 결정하는 지점(point)”이며, 또 “새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 없이는 피해갈 수 없는 불가피한 파멸로부터 이 세상을 구해낼지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지점”이라는 것이다(Arendt, 1961, 196). 비

장한 감정이 들어간 개념정의지만 오늘날 기후변화에 대한 '집합적 책임'에 대한 교육에서는 그와 같은 비장한 개념정의를 유념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기후변화에 대한 '집합적 책임'의 교육은 딱히 어린이나 청소년들만을 학습자로 상정하지 않는 게 더 바람직하다. 기후변화에 대한 '집합적 책임'이 이른바 다음세대(나이 어린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게 아니며, 현재 상태 지구상에서 삶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사항이 있는 것으로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집합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4장에서는 기후변화 교육자료의 일환으로 제작된 여러 저서와 다큐멘터리 등에서 묘사·재현된 기후변화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기후변화에 대한 '집합적 책임'을 교육하고자 하는 기독교교육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으로 네 가지 제안을 덧붙여보고자 한다.

1. 감정의 힘: 불안을 조장하며 분노를 소통하며

기후변화를 이야기할 때에는 흔히 과학적 통계를 제시하면서 불가피하게 제시하는 전개방법이 있는데, 곧 '불안을 조장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임계점(Tipping Point)을 넘어가면 지구의 생태환경에 얼마나 파괴적인 사건이 얼마나 큰 규모로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끔찍한 사태일 수 있다, 산업혁명 이후 지구의 온도가 급격히 치솟고 있다, 인간은 지구생태계를 파괴하던 끝에 공통처럼 멸종하고 말 것이다,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제로(0)를 달성해야 기후변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후재난을 그나마 저지할 수 있다 등이다.

작금의 기후변화는 인류가 충분히 불안을 느껴야만 할 만큼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있다. 그러므로 불안한 상황이라는 점을 알려주는 일은 현실 파악을 위하여 빼놓으면 안 되는 교육단계라고 할 수 있다. 불안은 신속한 대처방안과 구체적 대응 행동을 가져오는 유인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

나, 인지·행동·감정 중에서 태도를 교육할 때 감정 요인의 비중이 제일 크다고 할 수 있지만, 학습자가 즐겁지 않은 감정을 경험할 때는 교육 효과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게 사실이다(홍영일, 2014, 47-50). 실제로 불안한 상태는 쾌적한 상태가 아닌 탓에 이 상태가 별 변화 없이 오래가는 경우 사람들은 그것에 저항하게 되기가 무척 쉽다. 당장 내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계속 불안한 채 지내야 하는 걸 즐기는 사람은 없다.

그 외중에 비외른 롬보르(Bjorn Lomborg)의 『회의적 환경주의자』와 『쿨잇』, 마이클 셸렌버거(Michael Shellenberger)의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등이 출간되어 ‘불안해하지 말라, 불안해할 필요 없다’고 속삭여줄 때, 그쪽으로 마음이 쏠리는 건 자칫 인지상정으로 보인다. 『회의적 환경주의자』의 경우 선택적·자의적 인용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책의 분량은 천 쪽이 넘으며 거기 인용된 과학적 통계 각주 또한 천 가지가 넘는다. 그런데 요지는 기후변화 때문에 산업을 중단할 필요는 없고 인류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계속 발전해도 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을 선용하면 제반 환경 문제를 넉넉히 극복할 수 있다는 롬보르의 낙관적 전망은 매력적이다(Lomborg, 2003, 16). 기후변화 대책으로서 타당성을 주장한다기보다는 믿고 싶은 마음을 자극한다. 또 2007년 영국 채널4에서 제작·방영한 <위대한 지구온난화 대사기극(The Great Global Warming Swindle)>이라는 작품도 불안을 회피하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적 상태 쪽에 서서 기후과학자들을 공격하는 다큐멘터리다. 유튜브에서 제목으로 검색하면 2022년인 지금도 관람할 수 있다. 해당 작품에 출연한 과학자들의 프로필을 조사하고, 그들의 주장과 근거들을 교차체크한 끝에 지구온난화를 대사기극으로 공격하는 그 다큐멘터리의 부정직성이 만천하에 알려졌으나, 그럼에도 이 다큐멘터리의 논조에 동의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런 데다 기후변화의 경우 그것의 해결이 전지구적 단위로 일어나야 하기에 개인적 무력함을 느끼는 기후우울증(한재각, 2019, 12), 혹은 자포자기를 선택하는 ‘기든스의 역설’도 나타난다(Giddens, 2009, 10). 또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너무 자주 너무 많

이 주위들은 것 같아 싫증이 났다며 '관심피로'를 투덜대는 사람들도 있다 (Giddens, 2009, 55). 기후변화에 대한 경고성 발언을 그저 불안을 전파한 다거나, 공포를 조장한다고 폄하하기 시작하면 불평하기 쉬워진다.

그러나, 불안은 무조건 피한다고 좋은 게 아니다. 불안을 느껴서 그 불안의 힘으로 기후변화 환경운동에 전격 나선 사람이 있다. 그레타 툰베리다. 2021년 KBS에서 방영된 특선다큐 <더 나은 삶 안전한 대한민국: 그레타 툰베리—미래의 목소리>는 2018년 스웨덴 의회 앞에서 '기후를 위한 등교 거부'를 시작한 그레타 툰베리의 얼굴을 반복해 보여준다. 그레타의 얼굴은 여느 십대 소녀의 발랄함과 거리가 있으며, 불안의 기운이 가득하다. 그레타는 불안을 적극적으로 느끼는 데서 멈추지 않았다. 그레타는 자기가 느끼는 불안을 어른들도 느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그레타는 왜 어른들이 기후변화의 위험성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으며 불안해하지 않는지, 응답을 촉구하는 질문을 던졌다. UN 단상에 올라 거기 모인 어른들을 향해 "How Dare You"를 외치는 그레타의 표정을 보면, 불안과 그 불안을 해결해주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분노 사이를 의미심장하게 오가는 것이 포착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레타는 자신의 불안과 분노의 감정을 공공장소, 공적 영역에서 설명하며 소통하고자 하는 의욕을 내보인다.

기후변화에 대한 '집합적 책임'을 공유하고자 할 때, 기후변화라는 주제가 불안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동시에 불안회피 심리를 자극할 수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단, 불안을 해결하는 일과 불안을 회피하는 일의 차이를 명확히 분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후변화를 생각할 때 엄습하는 불안한 감정, 그 불안을 엄밀히 다루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의 감정, 그리고 내가 집중하는 기후변화 해결책과 다른 사람들이 집중하는 기후변화 해결책 사이에 있는 간격을 발견했을 때 일어나는 분노의 감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성찰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기후변화 주제에 관한 한, 나 개인의 분노는 나 하나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심지어 아주 낮은 사람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분노이기 때문이다.

2. 공공분노: 공통감각으로 이기주의를 넘어

모름지기 여러 형태의 사회운동, 저항운동, 시민운동은 합리성을 갖춰야 지 감정에서 촉발되거나 감정으로 유지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다(이인미, 2019). 인류 역사에 굽직한 변화를 가져온 모든 형태의 혁명 혹은 운동들은 감정(정서적 열정 혹은 울분)을 어떤 점에서는 충실히 반영하며 진전해왔다. 즉흥적인 바스티유 감옥 습격으로 시작된 프랑스 혁명, 1905년 차르의 군대가 민중을 향해 총을 쏘았던 ‘피의 일요일’ 이후 사회변혁의 붓물이 터진 제정러시아, 1918년 인명을 우습게 여기는 군 지도부의 명령에 반기를 든 수병들이 시작한 독일 11월 혁명이 그런 식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의 폭압에 분노하여 전국이 들고 일어났던 감격적 3.1만세운동이 그러했고, 고등학생 김주열의 죽음 이후 전국민적 분노가 결집되면서 불타올랐던 4.19혁명이 그러했으며,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대학생 박종철과 학교 교문 앞에서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대학생 이한열에 대한 감정적 동일시가 확장되는 가운데 항쟁이 본격화되었던 6.10민주항쟁이 그러했으며, 침몰하는 세월호 안에서 어른들의 무책임 때문에 스러져간 어린 생명들을 애도하는 감정이 여타의 정치적 이슈와 맞물려 마침내 거대한 촛불로 피어올랐던 2016-17년의 광화문 촛불집회가 그러했다.

한 사회가 변동을 겪을 때 인간의 감정은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결코 무시, 간과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애덤 스미스(Adam Smith)의 『도덕감정론』은 바로 그 지점을 짚어주고 있다. 그는 『도덕감정론』에서 ‘동감(동포감정, fellow-feeling)’을 강조하였다. 사회학자 박영신의 풀이에 따르면 동감은 “행위자의 이해관계 속에 매몰될 수 없는 인간본성”을 뜻한다. 박영신은 스미스가 그러한 방식으로 동감을 이해하고 있었기에 사회를 ‘사회’ 되게 하는 것은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동류에 대한 자연스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고 해석했다. 또 박영신은 <나, 다니엘

블레이크(I, Daniel Blake)의 영화감독 켄 로치(Ken Loach)의 가디언 인터뷰 내용을 예시하면서 인간이라면 “울 때 울어야 하고 웃어야 할 때 웃어야 하듯이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해야 한다”고 역설했고, 사람다움과 그 됨됨이가 분노능력에 내재해있다고 강조했다(박영신, 2017). 1948년 UN세계인권선언문을 기초한 사람 중 하나인 스테판 에셀(Stephane Hessel) 또한 분노라는 감정을 인간의 기본요소 중 하나로 파악했다(Hessel, 2011, 22). 에셀은 “레지스탕스의 기본동기는 분노”였다면서, 이민자, 불법체류자, 집시들을 정부가 어떻게 취급하는지 자세히 살펴본다면, 인간이라면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으며 그 분노를 바탕으로 하여 강력한 시민운동을 구상하고, 그것에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Hessel, 2011, 15-16).

박영신과 에셀이 한 목소리로 긍정하는 분노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구잡이로 타인을 향해 화를 벌컥 내지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또, 개인적 실패의 관점에서 자신을 파악하고 특정한 불의의 관점에서 세계를 판단하는 폭민(mob)으로서의 대중, 다시 말해 “개인적 고립”만 있지 “공통의 끈(common bond)”이 없어서 급기야 전체주의운동에 휘말려들게 된 “성난 개인들(furious individuals)”의 감정상태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다(Arendt, 1968, 315). 오히려 반대로 그것은 동감(동포감정)에 토대해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참여를 계획하는 저력으로서 이타적 분노를 가리킨다. 그 분노는 이타적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소통이 가능하다. 환언하면 그 이타적 분노는 ‘공통감각(Common Sense, Gemeinschaftlicher Sinn)’의 지평에서 전개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공통감각이란 흔히 말하는 의미의 ‘상식’을 가리키지 않는다(Arendt, 2003, 139). 칸트의 개념정의를 따르면 공통감각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며(Arendt, 2002, 132), “우리의 감정을 일반적으로 소통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판단의 기능”을 가리킨다(Arendt, 2002, 138).

아렌트가 해석한 칸트의 정치철학에 따르면, 이 공통감각에서 이기주의가 극복된다(Arendt, 2002, 131-132). 아렌트는 공통감각의 정당성(validity)

을 객관적·보편적인 것이 아니며 개인의 변덕을 따르는 주관적인 것도 아닌, 상호주체적(intersubjective)이자 대의적(representative)인 것으로 설명한다(Arendt, 2003, 141-142). 공통감각의 중심에는 칸트가 말한 '상상력'이 자리한다. 상상한다는 것은 지금 눈 앞에 없는 것, 지금 실재하지 않는 것을 실재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을 가리키는데, 공상이나 망상이나 백일몽이 아니라 구체적인 공동체 내의 다른 구성원들의 심정을 내 마음에서 상상하는 활동을 뜻한다(Arendt, 2003, 139). 칸트는 이를 '확장된 심성(enlarged mentality)'으로 불렀다. 확장된 심성은 "주관적이고 사적인 조건들을 이겨 내는 능력"을 가진다(Arendt, 2011, 212).

기후변화에 대한 '집합적 책임'은 그것을 교육하거나 공유하려는 장면에서 불안 혹은 분노의 감정을 어차피 동원하게 되며, 동반하게 된다. 아니 동반하는 게 유익하다. 불안과 분노의 감정을 굳이 감추며 껌찡은 척 애쓸 이유가 없다. 이 불안과 분노의 감정은 기후변화(기후위기) 시대에 얼마든지 소통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집합적 책임'이 교육되고 공유되는 순간마다 학습자들 사이에 불안한 감정과 분노의 감정은 지속적으로 소통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감정의 소통에서 정치적 힘이 나올 것이다. 독일의 정치신학자 도로테 쉴레(Dorothee Sölle)는 다음과 같이 질문한 적이 있다. "우리의 감정의 힘이 정치에서 통용되지 않는다면 그 힘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Sölle, 1987, 250-251)"

단, 여기서 유의사항이 한 가지 있다. '감정의 중요성=감정의 절대성'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만일 인간의 감정이나 비합리성을 낭만화하고 절대화하는 동시에 지구환경 및 생명체들 간의 상호연계성을 신비화할 뿐 아니라, 합리적 이성을 철폐하고 인간혐오 분위기를 전파하려 한다면, 독일 나치 고위급 인사들이 추구했던 전체주의적 (혹은 권위주의적) 녹색운동, 즉 에코파시즘을 자칫 무심결에 끌어들이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빌 & 스토든마이어, 2003, 22; 송명규, 2006).

3. 교육적 실천: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집합적 책임'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양심껏 고백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아야 한다.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인류 공동체 단위의 실행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기후변화를 정치의 문제(그것도 국제정치의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므로, 기후변화에 대한 '집합적 책임'을 교육하고자 할 때 교육자는 그것이 지닌 정치적 속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특히 한국적 정치 상황에서는 '정치적'이라는 단어가 대체로 부정적 맥락에서 사용되곤 한다. 정치적 의도, 정치적 고려, 정치적 파장 등을 부정적 어감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많다. '정치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냉소하거나 혐오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기독교교육이 드러내놓고 '정치적'을 표방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정치적 속성이란 직업정치인들의 속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공공의 문제에 나의 고유한 의견을 가지고 1/n로 참여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기후변화의 정치학』에서 기든스는 기후변화 문제에 관한 한 대화와 토론을 통한 의회정치적 해결이 주효하다고 보았는데(Giddens, 2009, 14), 기후변화에 대한 '집합적 책임'의 교육은 바로 그것을 목표이자 방법으로 해야 한다. 즉 기후변화에 대한 '집합적 책임'을 교육자와 학습자가 정치적 주제로 공유해야 하는데, 기후변화의 '집합적 책임'을 다룰 때 의회정치적 활동 형식(대화와 토론)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공통감각을 통하여 이기주의를 넘어서서 공공분노의 차원으로 승화되려면, 그리고 실천의 차원까지 나아가려면, 각자의 감정에 대하여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내 의견을 제시하는 대화와 토론을 감행하면서 자신의 감정이 소통되는 경험을 직접 해보는 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공동체적 돌봄을 교육하고자 할 때 공동체적 돌봄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기보다 공동체적 돌봄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상황을 제안하거나 마련해주는 마

아족의 양육처럼 말이다(Douclevff, 2022, 111). 그런 의미에서 “자녀의 에너지가 왕성하길 원하면 당신(부모 혹은 교사) 스스로 그렇게 행동하면 된다”는 언급도 함께 기억하면 좋을 듯하다(Douclevff, 2022, 213).

결론적으로 말해, 생태적 패러다임(세계관 혹은 상상력)을 교육할 때에도, 그리고 공동체적 실천을 염두에 둔 개인적 생태영성 훈련을 제안할 때에도, 아렌트가 원칙적으로 강조했고 기든스도 역설했던 바, 정치의 속성이자 본령으로서 의회정치적,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대화와 토론’ 훈련이 학습방법으로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집합적 책임’은 원칙적으로 정치적 과제라서, 정치적 태도와 행위를 스스로 연습하는 가운데 비록 더딜지라도 결국 튼튼하고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대응 같은 긴급한 과제일수록 침착하게 다루어야 하며, 겉으로 보이는 문제상황에 대한 속전속결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경험의 축적을 의도해야 한다. 대화와 토론을 중심에 둔 교육방법은 공동체 내에서 공동체구성원들이 민주주의적 경험을 축적하게 함으로써 마침내 공동체에 의미있는 변화를 일으키도록 이끌 수 있다. 이것을 교육학 분야의 한 연구자는 공공적 학습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시민참여로서 아렌트적 토론학습”이라고 부르기도 했다(신서윤, 2020, 106).

4. 정치적 참여: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개인 안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이를테면 자연스러운 감정적 이끌림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만약 기독교가 그런 종류의 사랑을 이야기하였다면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여라(레19:18; 마22:40)”는 계명은 애초에 인간이 전연 실행할 수 없는 행동을 명령한 셈이 될 것이다. 이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감정적 이끌림을 통해 사랑을 실현하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이웃을 보자마자 대번에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는 사람은 거

의 없다. 이웃사랑에는 의지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의지와 노력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 있다. 그것은 바로 신앙(믿음)이다. 성 아우구스티누스(St. Augustinus)이 주장했듯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신앙적으로 수용한 사람에게서 활성화되는 종교적 의미의 사랑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인간은 자신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이웃이 보일 때에야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이웃을 사랑하여라, 서로 사랑을 실천하여라, 이 명령을 기독교인들이 받았으며, 기독교인들은 서로 사랑하는 동안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다(Arendt, 1996, 111-112).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성품이나 교양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웃사랑의 의지와 노력을 추동한다는 이야기다.

기독교인으로서 살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서 자칫 실패할 때마다 우리가 절실히 인정하게 되는 것이 있다. 나 개인의 재능 및 성품에서 사랑이 뿔어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증간소음을 유발하되 미안해하지도 않고 뻔뻔스럽기만 한 내 이웃을 사랑하기란 쉽지 않으며, 타종교인, 정치적 반대론자, 이주민, 또는 난민이 내 이웃집에 이사 오는 것은 꺼림칙하게 느껴지며, 사촌이 땅을 사면 내 배가 아플 뿐 사랑이 절로 샘솟지 않으며, 소위 성공한 업친딸(엄마 친구 딸)은 잠정적 경쟁자 혹은 질투의 대상이지 축하 받을 이웃이 아니다. 요한서신은 이 같은 인간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읽어 준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요일4:7).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다(요일4:8, 16). 기독교에서 사랑은 믿음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이야기될 수 없다. 믿음 없이 사랑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동시에 또 믿음은 행함(행위)과 무관하게 존재하지 않으며 행위에서 유리되지 않는다고 성서는 증언한다.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 만으로는 죽은 것”이다(약2:17). 믿음과 행위는 양자택일의 항목이 아니다. 두 가지 중 무엇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를 결정할 권한이나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에서는 열매가 잘 맺힐 수밖에

없다. 가지가 나무에 간신히 붙어있거나 붙어있는 척하거나, 부러져있거나 떨어져있으면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않을 것이다(요15:1-5). 어차피 인간 내면에 있는 믿음은 외부로 나타난 현상(appearance) 즉 행위로 파악되고 측정될 수밖에 없다.

사랑과 행위와 믿음은 우리 현실에서 통합적으로 또 유기적으로 나타난다. 사도 바울 또한, 할례를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한 바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갈5:6, 표준새번역).” 이를 개역개정 성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공동번역 성서는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으로 번역하였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 현실 속에서 믿음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의 행위로 구체적으로 또 시각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다. 오늘날 기후변화에 대한 ‘집합적 책임’은 바로 그 같은 의미의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의 한 항목이라 말할 수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집합적 책임’은 홀로 책임감을 묵상하며 걱정하며 궁리하는 것으로는 풀리지 않는다. 그럴 만한 과제가 아니다. 두 명 이상이 모여서 기후변화를 주제로 민주적으로 대화하고 토론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그 활동이 곧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의 한 표현양상일 것이다.

V. 나가는말

바야흐로 기후변화에 대한 ‘집합적 책임’이 긴급한 때다. 시간이 많지 않다. 이러한 때에 기후변화에 대한 불안한 감정과 기후변화를 좌시하는 이익 집단들에 대한 분노의 감정은, 공통감각에 토대를 둔 사람들 사이에 그들이 형성하고 유지하는 현상의 공간에서 얼마든지 민주적 대화·토론을 통하여 소통이 가능하다. 이 소통은 기독교인의 경우엔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에 잇대어있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 비기독교인의 경우라면, 이웃과 세계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집합적 책임'을 감지한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보이는 존경(아렌트의 표현으로 하면 '우정,' 아리스토텔레스의 표현으로 하면 '정치적 우애/ philia politike')과 무관하지 않으리란 것을 추론할 수 있다 (Arendt, 1998, 243; Aristotle, 2005, 323-326).

이제까지 본 연구는 분노나 불안 같은 인간의 감정이 정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과 그 영향을 기후변화에 대한 '집합적 책임'의 차원에서 격려하고자 하는 교육목표를 지닌 기독교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였다. 분노나 불안 같은 감정을 정치적 영역이 아닌 교육심리(발달심리) 영역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연결하여 검토하는 후속연구 작업들을 기대한다. 또, 본 연구에서는 실제 기독교인들 사이에 나타나야 마땅한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의 구체적 사례들이 다양하게 제시되지는 않았는데, 이는 다음 연구과제로 넘기고자 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는 두 가지로 요약이 가능하다. 첫째는 정치적 개념으로 아렌트가 소개한 '집합적 책임'과 기후변화를 주제로 하는 기독교교육을 연결하여 환기하였다는 점이다. 아렌트의 정치사상을 기독교교육 분야로 들여와 논의하는 작업은 아마도 본 연구논문이 국내에서 최초가 아닐까 싶다. 두 번째는 기후변화 문제에 관한 한 기독교교육의 정치적 영향력이 개인과 교회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칠 수 있고 또 미쳐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는 점이다. 한편 그 정치적 영향의 정체는 집회나 시위 같은 실력행사가 아니라,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 즉 기독교의 사랑과 믿음을 본 연구는 주장하였다. 기독교교육이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기독교 교리의 알짜 말이다.

참 고 문 헌

- 김은주 (2020). 생태학적 기독교 영성을 통한 기독교교육의 방향과 실천적 제언. **기독교교육논총**, 63, 347-376.
- [Kim, E. J. (2020). Direction and Practical Proposal for Christian Education through Ecological Christian Spirituality.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3, 347-376.]
- 김난예 (2009). 함께 사는 것을 배우는 교육. **기독교교육논총**, 20, 85-111.
- [Kim, N. Y. (2009). Education on How to Live Together.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20, 85-111.]
- 박영신 (2017). '공공분노'에 대하여: '광화문 촛불집회' 풀이. **사회이론, 봄/여름**, 1-29.
- [Park, Y. S. (2017). On Public Anger: Interpreting the Seoul Candlelight Rally. *Social Theology, Spring/Summer*, 1-29.]
- 손문 (2012). 녹색성장과 기독교대학: 기후변화와 새로운 교육모형에 관한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30, 345-381.
- [Son, M. (2012). Christian Higher Education for Green Growth: A Study on the New Model of a Christian University on Climate Change.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30, 345-381.]
- 송명규 (2006). 사회생태학과 심층생태학의 생태파시즘 논쟁과 그 교훈.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8(2), 145-166.
- [Song, M. G. (2006). The Eco-Fascism Debate between Social Ecology and Its lesson. *Journal of KRDA(The Korean Res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18(2)*, 145-166.]
- 신서윤 (2020). 한나 아렌트 행위 개념과 시민참여교육.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Shin, S. Y. (2020). Hannah Arendt's Action and Citizen Participatory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Ewha Womans University.]
- 이인미 (2019). 감정과 정치: 백 년 만에 떠오르는 분노의 반일감정. **현상과인식**, 43,

267-275.

[Lee, I. M. (2019). Emotion and Politics: A Resurge of Rage against Japan After a Hundred Years. *Phenomenon and Perception/ Hyunsang-Kwa Insik*, 43, 267-275.]

조미영 (2021). 기후변화의 위기와 기독교 생태교육의 방향 모색. **기독교교육논총**, 67, 415-447.

[Cho, M. Y. (2021). The Crisis of Climate Change and the Direction of Christian Ecological Education.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7, 415-447.]

조천호 (2019). **파란하늘 빨간지구: 기후변화와 인류세, 지구시스템에 관한 통합적 논의**. 서울: 에코리브르.

[Cho, C. H. (2019). *Blue Sky Red Earth*. Seoul: Ecolivres.]

한재각 등 (2019). **1.5 그레타 툰베리와 함께: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위한 긴급 메시지**. 대구: 한티재.

[Han, J. K. et. al. (2019). With Greta Thunberg, 1.5. Daegu: Hantijae.]

홍영일 (2014). 태도의 형성 및 변화를 위한 교수원리 탐색 및 전략개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Hong, Y. I. (2014). Exploration of Instructional Principles and Developing an Instructional Strategies for Attitude Formation and Chang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ristotle (2005). **(서양사상에 큰 영향을 준) 니코마코스 윤리학**. 최명관 옮김. 서울: 훈복문화사.

[Aristotle (2005). *(The) Nicomachean Ethics*.(Choi, M. K. Trans). Seoul: Hunbogmunhwasa]

Arendt, H. (1961). *Between Past and Future*. New York: The Viking Press.

Arendt, H. (1968).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New York: A Harvest Book · Harcourt

Arendt, H. (1996). *Love and Saint Augustin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rendt, H. (1998). *The Human Condi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rendt, H. (2002). **칸트 정치철학 강의**. 김선욱 옮김. 서울: 푸른숲.

[Arendt, H. (2002). *Lectures on Kant's Political Philosophy*. (Kim, S. W. Trans). Paju: Prunsoop/ Green Forest. (Original work published in 1982)]

Arendt, H. (2003). *Responsibility and Judgment*. New York: Schocken Books.

Arendt, H. (2011). **정치의 약속**. 김선욱 옮김. 파주: 푸른숲.

[Arendt, H. (2011). *(The) Promise of Politics*. (Kim, S. W. Trans). Paju: Prunsoop/ Green Forest. (Original work published in 2005)]

Antal, J. (2019). **기후교회, 왜? 어떻게?** 한성수 옮김. 고양: 생태문명연구소.

[Antal, J. (2019). *Climate Church, Climate World: How People of Faith Must Work for Change*. (Han, S. S. Trans), Goyang: Ecological Civilization Research Institute. (Original work published in 2018)]

Biehl, J., & Staudenmaier, P. (2003). 김상영 옮김. **에코파시즘: 독일 경험으로부터의 교훈**. 서울: 책으로만나는세상.

[Biehl, J., & Staudenmaier, P. (2003). *Ecofascism: Lessons from the German Experience* (Kim, S. Y. Trans), Seoul: A world through books. (Original work published in 1995)]

Douclevff, M. (2022). **아, 육아란 원래 이런 거구나!: 자율적인 아이와 단단한 부모를 위한 천년의 육아법**. 이정민 옮김. 고양: 시프.

[Douclevff, M. (2022). *Hunt, Gather, Parent: What Ancient Cultures Can Teach Us about the Lost Art of Raising Happy, Helpful Little Humans*. (Lee, J. M. Trans), Goyang: Siif. (Original work published in 2021)]

Giddens, A. (2009). **기후변화의 정치학**. 홍욱희 옮김. 서울: 에코리브르.

[Giddens, A. (2009). *The politics of climate change*. (Hong, W. H. Trans), Seoul: Ecolivres. (Original work published in 2009)]

- Hessel, S. (2011). **분노하라**. 임희근 옮김. 파주: 돌베개.
 [Hessel, S. (2011). *Indignez-vous!*, (Lim, H. G. Trans), Paju: Dolbegae/ Stone Pillow. (Original work published in 2011)]
- Lomborg, B. (2003). **회의적 환경주의자**. 홍욱희 · 김승욱 옮김. 서울: 에코리브르.
 [Lomborg, B. (2003). *The Skeptical Environmentalist: Measuring the Real State of the World*, (Hong, W. H., & Kim, S.W. Trans), Seoul: Ecolivres. (Original work published in 2001)]
- Marshall, G. (2018). **기후변화의 심리학: 우리는 왜 기후변화를 외면하는가**. 이은경 옮김. 서울: 갈마바람.
 [Marshall, G. (2018). *Don't Even Think about It: Why Our Brains Are Wired to Ignore Climate Change*, (Lee, E. K. Trans), Seoul: Galmabaram. (Original work published in 2014)]
- McFague, S. (2008). **기후변화와 신학의 재구성**. 김준우 옮김. 고양: 한국기독교연구소.
 [McFague, S. (2008). *A New Climate for Theology: God, the World, and the Global Warming*, (Kim, J. W. Trans), Goyang: Korean Institute of the Christian Studies. (Original work published in 2008)]
- Niebuhr, R. (1992).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이한우 옮김. 서울: 문예출판사.
 [Niebuhr, R. (1992).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Lee, H. W. Trans), Seoul: Moonye Publishing Co., Ltd./ Literature and Art Publishing Co., Ltd. (Original work published in 1932)]
- Sölle, D. (1987). **사랑과 노동**. 박재순 옮김.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Sölle, D. (1987). *Lieben und Arbeiten. Eine Theologie der Schöpfung*, (Park, J. S. Trans), Cheonan: Korea Theological Study Institute. (Original work published in 1983)]
- White, L. (1967).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al Crisis*. Science, 155, 1203-1207.

Abstract

Christian Education and Collective Responsibility for Climate Change

Lee, Inmee

Researcher, the Institute for Theology at Sungkonghoe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apply Hannah Arendt's concept of 'collective responsibility' to the Christian education on environmental issues around the world, focusing on climate change. This study prepares the concept of 'collective responsibility' and the concept of 'collective guilt' and emphasizes the fact that the current climate change problem should be seen as a political task rather than a task of personal ethics. According to Arendt's theory, Christian education activities applying 'collective responsibility' for climate change can become action. This study has four suggestions for Christian learning to understand and recognize climate change. First, presenting and justifying the anxiety and anger toward climate change in the classroom. Second, transcending self-interest (egocentrism) through "Common Sense (enlarged mentality)" in Kantian terms. Third, building education communities through 'citizen participatory education,' running communication, and conversation. Fourth, encouraging experience and practice in every education community with "faith expressing itself through love (Gal 5:6)." Then, to be sure, this refers to not only love of neighbor in Christianity but also political friendship (*philia politikē*). The academic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is the first interdisciplinary research paper in Korea which dealt with Arendt's political theory in relation to Christian education. Although it claims to be a theoretical work that applies Arendt's political theory from a systematic theological perspective to Christian education, the

author is proud that it is accompanied by practical elements that can be actualized in the education field.

《 **Keywords** 》

Climate Change, Christian Education, Hannah Arendt,
Collective Responsibility, Emotion, Common Sense.

- 투고접수일 : 2022년 9월 6일
- 심사완료일 : 2022년 9월 28일
- 게재확정일 : 2022년 9월 29일